무등 plus 제 11 호

생동하는 교회 광주무등교회

교회창립 1985. 11. 23. GWANG JU MUDEUNG PRESBYTERIAN CHURCH 2022년 7월 3일(주일)

● **발행인** : 오용선 ● **편집인** : 지형원 ● **인쇄인** : 김순영 ●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무등교회 / 광주광역시 서구 서광주로 19 ● **대표전화** 062-373-0034 FAX 376-6084 ● **인쇄처** : 푸른인쇄사

“영혼 사랑의 온도 370,000℃를 높이자”

무등교회 2022년 전도 캠페인 전개



6월 23일 현재 영혼사랑의 온도계

우리교회는 올해 ‘영혼사랑의 온도 370,000℃ 높이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대적인 전도캠페인을 벌인다. 영혼사랑의 온도 370,000℃는 우리 무등교회 창립37주년에 맞춰 정해진 목표이다.

우리교회가 전도축제를 갖기로 한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2년여간 대면, 비대면 예배가 반복되면서 성도들의 신앙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를 회복의 해로 선포해 신앙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우리교회는 지난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2022년 전도 축제》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전도축제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자』 라는 목표로 오는 10월 16일까지 26주간 계속된다.

“영혼 사랑의 온도 370,000℃를 높이자”는 캠페인은 각교구마다. 70,000℃의 온도를 설정하고, 전도 축제 참여 작정서와 전도 대상자를 기입해 제출하면 20,000℃의 기본 온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6월 말 현재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는 325명이다.

성도들은 교회가 배부한 쿠폰북에서 주일마다 기도 온도, 말씀 온도, 예배 온도, 실천 온도 등을 기록해 제출하면 한 주 동안 실천한 회수에 온도를 곱하여 합계를 내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 6월 5일 주일에는 ‘영혼 사랑의 온도 깜짝 시상식’을 가졌는데 최고 온도 구역상 114구역(구역장: 임회자 권사), 최고 참여 구역상 301구역(구역장: 최은정 권사), 최고 개인 온도상 111구역(주숙녀 권사)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편집부〉

아프리카 케냐 와소니르 교회 건축지원

세계 선교지 15개로 확대 지원금도 늘려



나무 아래서 창립예배를 드린 케냐 와소니르 교회

우리교회는 올해 세계 선교지를 기존 8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매년 예배당이 없는 지역에 2천만원의 지원금을 보내 1개씩의 교회를 세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해외 선교지 교회 건축 지원은 아프리카 케냐의 이동관 선교사가 추진하고 있는 와소니로(Ewasonyro)교회를 지원키로 했다.

와소니로 교회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마사이부족의 작은 타운 마을에 세워지는 교회로 예배당 건물이 없이 나무 아래서 지난 3월 첫 주에 창립예배를 드린 곳이다. 그 지역은 시골 오지와 타운 마을을 잇는 교량역할 지역으로 현재 성인 120여명과 어린이 15여명이 모여 예배하고 있으며, 500석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총 예산 7,500만원 중 2,500만원을 확보하여 기초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공사 비용을 기도 중에 있었던 중 우리교회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또 우리교회가 그동안 지원해온 세계 선교지도 8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월 지원액도 총 22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크게 늘리는 등 세계 선교의 방향을 바꿨다.

이는 우리 교회의 6대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선교 사역에 확장을 위한 것으로 필리핀 코기오 무등교회 중심 세계선교에서 선교지를 다양화하고 지원액도 월 20만원 이상으로 증액시켰다.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9개 선교지는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르완다, 에콰도르, 러시아, 중국, 필리핀, 서부아프리카 베냉 등이며 앞으로 3년마다 선교지 활동상황을 점검해 지원처를 바꾸거나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교회 세계선교는 교회 차원에서 실시하는 15개 지역 이외에도 각 자치회에서도 참여함으로써 세계 선교활동이 크게 활발해 지게 되었다. 올해 1,4권사회에서는 네팔(김태순), 2권사회에서는 케냐(이동관), 3권사회에서는 러시아(최환식), 고등부에서는 태국(장준우), 중등부에서는 중국(진영빈) 지역을 후원하고 있다.

2022년도 세계 선교지 15개 지역은 다음과 같다.

No.	지역	선교사	사역	선교헌금	시작연도
1	필리핀	김병길	코기오 무등교회	100	2008
2	일본	김영희	동경 오야마기독교회	20	2008
3	터키	김재욱	터키 샘물교회	20	2008
4	필리핀	박정규	몬탈반 지역 성경공부 사역 및 유치원 사역	20	2012
5	외국인 초청 선교사 양성	임석인	새벽이슬교회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현지인 선교사 양성 사역	20	2014
6	온두라스	박명하	온두라스 168개 교회 설립	20	2014
7	캄보디아	박영주	여호수아 센터 사역 및 교회 개척	20	2022
8	남아프리카 공화국	임인모	남아공 은혜선교교회	20	2022
9	태국	염신승	신학대학사역 및 방송사역	20	2022
10	르완다	고민수	학원사역 및 의료사역	10	2022
11	에콰도르	조현호	아마존 8개 교회 협력사역	10	2022
12	러시아	이제경	모스크바 ○교회	10	2022
13	중국	전태현	중국 천진 엘림교회	10	2022
14	필리핀	김지수	필리핀 루손 지역 사역	10	2021
15	베냉(서부아프리카)	김민호	아프리카 베냉 현지교회 협력사역	10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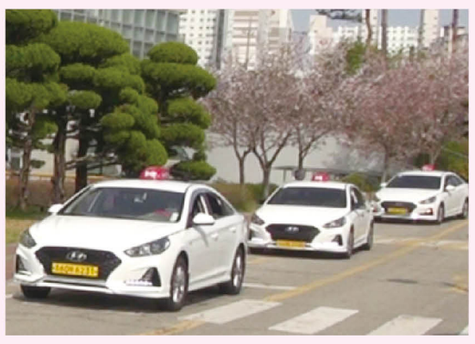
‘택시타고 교회 오는 날’ 행사 성료

광주무등교회는 교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택시타고 교회 오는 날’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광주시내 택시 기사들을 위로 하고 교회 위치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행사에는 모두 161가족이 참여했다.

국내 전도부(위원장 배준호장로)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 이날 행사는 성도들에게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택시 부르기 앱설치와 활용 방법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택시를 이용한 성도들은 거스름돈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부름 택시가 교회주차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해 기사님들에게 생수와 세차 수건, 교회안내 흥보 브로슈어 등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두 차례나 광주무등교회 성도들을 태우고 교회에 왔다는 어떤 기사님은 “이 각박한 세상에 거스름돈을 받지 않아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고 또 다른 기사님은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2만원을 받았으니 만원은 헌금으로 드리고 싶다.”고 헌금을 부탁한 경우도 있었다.

이 행사는 처음 실시한 데다 장거리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참여하기는 다소 부담스런 부분도 있었지만 택시기사님들에게 좋은 취지가 알려지면서 광주무등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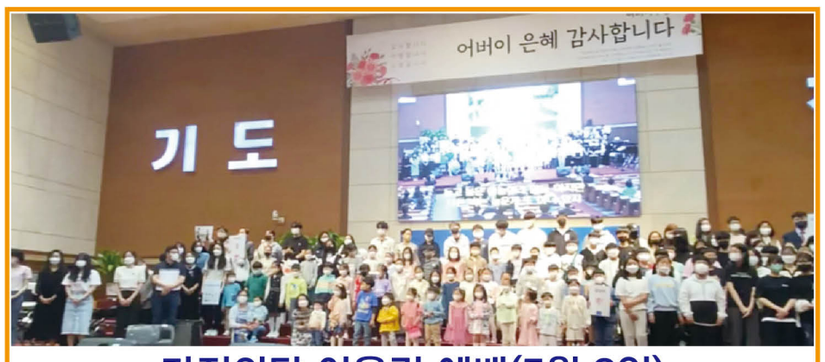




무등교회 브로슈어 발행

광주무등교회는 창립 37주년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전도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교회 안내 브로슈어(brochure)를 발행했다. 10×21㎝ 크기 6면으로 제작된 이 브로슈어는 1면은 표지, 2면은 예배안내, 3면 교회시설, 4면 양육과 훈련, 5면 사진으로 본 교회사역 모습, 6면 교회 역사와 비전을 담고 있다.

이 브로슈어는 성도들에게 배포돼 전도에 활용하게 된다.



가정의달 어울림 예배(5월 8일)

우리교회는 지난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전교인 ‘어울림 예배’ 를 가졌다. 주일 2부 예배에는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본당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대표 기도로 유년부 나건호학생이 순서를 맡았다. 이날 예배에서는 교육부 특송으로 ‘어머니 은혜’를 불러 성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3부 예배에는 청년부가 성인부 예배에 참여했으며, 오유겸청년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기도문에 담아 가족간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당 강단 무대 특수조명 교체

우리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본당 무대 특수조명을 할로겐 등에서 LED 등으로 교체하는 큰 공사를 실시했다.

이 공사기 진행됨으로써 빛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무대 전체가 고르게 비춰져 밝기도 1,000~2,000 룩수가 커졌다.

또한 할로겐 등은 개당 1,000와트의 전력을 사용했으나 LED는 250와트로 낮아져 강단의 열도 259℃에서 54℃로 낮아졌으며 전기료도 월 173만원이 절약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할로겐 등의 수명은 2,000시간 내외이나 LED는 20,000 시간 내외여서 10배 이상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교체된 LED 등은 Parlight 47개 등(250와트), 엘립소이드 light 6 등(200와트) 등 모두 53개이다.

한편, 이번공사는 교회 특수조명 설비업체인 주)스타 엘브이에스에 의뢰해 진행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무등교회

www.mdch.or.kr



원로목사 진 명 옥



담임목사 오 용 선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1부	오전 07:30	본 당	영 아 부	오전 09:30	지하1층2관
주일 2부	오전 09:30	본 당	유아유치부	오전 09:30	지하1층2관
주일 3부	오전11:30	본 당	유 년 부	오전 09:30	지하1층3관
주일오후	오후 2:00	본 당	초 등 부	오전 09:30	지하1층5관
수요예배	오후 7:30	본 당	중 등 부	오전 09:30	지하1층9관
금요심야	오후 8:30	본 당	고 등 부	오전 09:30	지하2층1관
새벽기도	오전 5:30	본 당	청 년 부	오후 1:30	지하2층1관

62010 광주광역시 서구 서광주로 19(매월동) TEL. 062) 373-0034 FAX. 376-6084

오용선 담임목사 목회서신

생명을 전하는 전도축제… 가족과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자



선교의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젊은 날에 복음을 전하고자 이역만리를 떠났는데, 선교의 뜻을 펼치기도 전에 순교를 당하는 선교사들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1839년, 영국 하노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토마스는 다재다능하여 웨일즈와 런던에서 공부하는 중, 여러 언어에 능통했고, 선교사가 되려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863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동시에 안수 받은 그는 막 결혼한 캘롤라인과 함께 죽음의 땅 중국을 향합니다. 그러나 5개월의 항해 끝에 도착하였지만, 4개월 만에 아내를 잃고 맙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 받았다는 생각에 선교사를 사임하지만, 곧 2명의 조선인들을 만나면서 그의 가슴에는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조선에 대한 관심, 조선 땅에 성경을 전달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지원으로 연평도에 두 달간 머물면서 성경을 나눠주는 등, 전도활동을 하다가 1866년 두 번째 방문에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가면서 평양에 다다랐을 때, 완고한 평양감사는 그 배를 불태우고 탑승했던 24명 전원을 몰살시키게 함으로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의 꿈을 피우지 못한 채 순교를 당합니다.

1927년,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 재학 시절에 글을 잘 쓰는 연설가이자 교사, 지도력 있는 학생,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자 스타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미국에서 좋은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에콰도르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는 퀴추아 인디언 사역을 계속하면서 너무 호전적이어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이웃 아우카족에게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이미 쉘석유회사 직원들을 여러 명 살해한 바가 있는 사나운 종족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그는 곧 아우카족의 죽임을 당합니다. 그에게는 사냥용 총이 있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었지만, 그는 총을 끝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목사와 짐 엘리엇 선교사는 모두 선교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선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목사의 순교의 피는 대동강과 함께 평양과 조선에 흘러가게 되었고, 이 순교의 터전에 한국교회가 꽃을 피웠습니다. 엘리엇의 순교로 아우카족 모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열정과 도전을 주어 수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세계각처에 파송되어 1960년대 미국은 선교 르네상스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선교는 중단되거나 퇴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열방으로 확장되어 갔음을 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 되기 때문입니다.

극동방송을 듣다보면, 시보를 알려주는 시간에 극동방송의 정체성을 알리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마디이지만,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예수, 오직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입니다.

우리는 26주간에 걸쳐 "전도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축제는 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새 생명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음의 사각지대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내 가족이요, 내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우리를 향한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모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토마스와 엘리엇 선교사처럼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지라도, 부디 가까운 나의 가족,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여 마침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외치며, 증거해야 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



여름캠핑 30·40세대 100여명 참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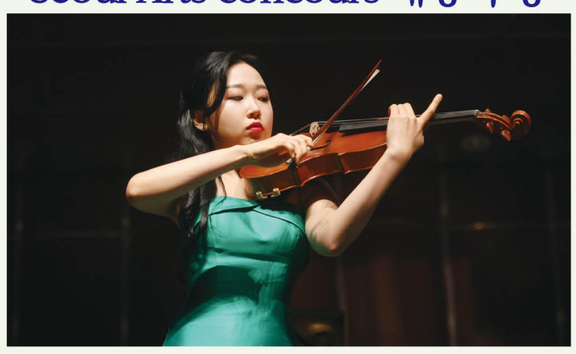
우리교회 3040세대 친교 캠핑이 지난 6월 4일 토요일부터 6월 6일 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3주차장에서 진행되었다. 캠핑장에는 취사를 할 수 있는 전기와 수도시설이 설치되었으며 텐트와 그늘막, 대형 물놀이장이 설치돼 도심 속의 캠핑장으로 손색이 없었으며 무려 1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이 행사는 코로나로 지친 3040세대가 캠핑을 통해 단합하고 교회 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4대 절기(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를 주제로 한 이번 캠핑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님의 강림 등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날은 오순절 성령강림절을 맞아 자녀와 함께 하는 성경퀴즈와 더불어 이스라엘 절기를 알기 쉽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모형으로 된 문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통과하는 예식과 더불어 성찬식을 가졌다. 이후 자녀들은 야외에서 이집트왕자 영화를 보고, 어른들은 요즘 유행하는 '불멍시간'을 가지며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모였는데 특히 저녁 시간에 가진 숯불 바비큐는 참가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특히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장로, 집사, 권사, 청년들이 캠핑장을 찾아 격려했으며 타악기팀의 특별공연도 즐거움을 더했다. 〈관련 참가기 4면〉

김가연 청년
Seoul Arts concours 대상 수상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중인 김가연 청년이 지난 3월 12일 열린 Seoul Arts concours에서 전체 대상을 수상했다. 비올라를 전공하고 있는 김가연 청년은 악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 오는 11월 수상자 연주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음 winner's Festival 시상식이 지난 5월 31일 마포 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화학교 재단 100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이날 페스티벌에서 김가연은 1명의 MVP로 선정돼 한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수상자 연주곡은 파가니니의 'Caprice'이다.

김가연 청년은 310구역 김병국집사 우주연권사의 2남 1녀 가운데 둘째이다.

인터뷰 | 김병완-김의수 집사

주차정리, 장인과 사위가 책임진다
김병완-김의수 집사 代를 이어 봉사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교회 입구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두 남자(?)와 만난다. 한사람은 오랫동안 교통정리부장으로 봉사해온 김병완 은퇴집사(72)이고 또 한사람은 사위 김의수 집사(51)이다.

경험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했던가. 김병완 집사의 손놀림이 자연스럽고 친절하다. 올해 교통정리부장을 맡은 50대 초반의 김의수 집사는 아직은 아무래도 손놀림이 뻣뻣한 것 같다. 그래도 장인 어르신(?)의 호된 꾸지람을 잘 견디며 따라 하다 보니 점차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주일마다 만나는 두 사람. 이들이 장인과 사위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소문에 따르면 교통정리부원들이 부장으로 추천했지만 장인어른이 허락하지 않아 며칠을 가슴 졸여야 했다고 한다. 교통정리부장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데다 이왕에 맡았으며 잘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부장을 맡은 뒤로 더 책임감이 강해지고 교회생활에 더 충실해졌다는 것이 부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사실 김병완 집사는 봉사의 달인(?)이다. 매주 토요일 교회에 나오면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이곳저곳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고하십니다"라는 인사에 그의 대답은 "운동하고 있습니다"이다. 군에서 정년한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그에게서는 아직도 군대 생활의 흔적이 역력하다.

김병완 집사는 2009년 무등교회 등록 후 교통봉사를 8년, 본당 카펫청소를 13년째 이어오면서 국내전도부장, 주차부장, 남선교회 등 교회 거의 모든 부서의 일을 묵묵히 맡아왔다. 큰사위 김의수집사는 새벽이슬찬양대, 시온찬양대를 수년째 섬기고 있고 조순임권사와 김수진 권사 또한 전도팀과 수요찬양대의 자리에 선지 오래다.

김병완-조순임 권사 가족에게는 주일날이 가족만남의 날이다. 무려 14명이 우리교회에 나오는 대가족이다.

큰딸 김수진 권사(45) 큰사위 김의수 집사(51)와 그들의 자녀 김은혜(초등부,11), 그리고 셋째 딸 김수현(41) 셋째 사위 김두영(43)과 그들의 자녀 김민호(초등부,12) 김윤호(유년부,9) 김현호(유치부,7), 그리고 막내아들 김재권(40)과 며느리 정은주(38), 자녀 김진경, 김진성 쌍둥이(유년부,8) 등 14명이 무등교회 구성원이다. 서울에서 믿음 생활하는 둘째딸 부부도 광주에 내려오는 주일에는 어김없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 이웃에 대한 사랑, 권위에 대한 존경, 말씀에 대한 순종, 자기에 대한 절제〉가 가훈이며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를 가장 사모한다.

김병완 집사는 손자 손녀 6명을 교회학교에 데려다 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주신 은혜에 감사뿐이다고 말한다. 코로나 이전 교회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는 가족들이 식탁 네 개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 축복의 가정이 자리 잡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는 이러하다. 중고등학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서울소재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던 큰딸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광주로 돌아와 별별 방법을 다 해도 차도가 없었는데 어느날 큰딸이 교회에 가면 살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2001년 부부가 교회에 등록했다. 둘째 딸은 성경책을 사서 보내며 응원해주었고 수년전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여동생과 제수씨를 통해 이미 영접하고 가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 즈음부터 성령역사가 시작되었다.

김병완 집사는 12대 장손으로 직업군인 출신 예비군중대장으로 예비군들에게 짬짬이 효와 충을 교육하고 복 받는 제사법과 고사지내기를 교육했다. 그런데 어느날 우상숭배와 제사이야기만 하면 입을 마비시켜 막으시더라는 것이다. 또 술, 담배 끊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기도하자 온몸과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염려가 없어졌다고 한다. 조순임 권사는 큰딸이 우리 가정을 세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사위와 며느리가 믿음생활을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조순임 권사는 군대식이라 다 따라간다며 해맑게 웃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유창하게 들려주었다.

얼마나 간절한 시간들이었는지 어머니의 몸부림이 느껴진다. 아버지의 헌신과 섬김,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 순종하는 자녀들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다. 〈최현 권사〉

교회단신



교회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우리교회는 지난 6월 말 교회 주차장 바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마쳤다. 주차장 바닥이 균열이 가고 주차면의 크기가 작아 주차에 어려움이 있다는 성도들의 지적에 따라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것으로 현재의 주차면의 크기가 2.3m에서 2.5m로 확대되어 주차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성도들간의 불협화음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주차면이 넓어짐으로써 전체 주차 가능면수는 현행 242면에서 24면이 줄어진다. 여기에는 모두 5천여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서구청으로부터 나눔주차장 활용과 관련 2,5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3,000여만원은 교회예산이 투입되었다.

2022년 상반기 유아세례식



2022년도 상반기 6명에 대한 유아세례식이 가정의 달인 지난 5월 1일 어린이 주일날 이뤄졌다. 이날 유아세례식에서는 아이들을 대신하여 부모가 대신 서약을 하고 오용선 담임목사가 세례를 베풀었다. 이들은 15세가 될 때에 입교문답을 받게 된다. 이날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와 부모는 다음과 같다.

강서준(강경신 조유리) 박시유(박원진 이희진)
이도경(이장문 범지원) 이 솔(이인수 송고은)
이 율(이재영 송 진) 이유하(이화준 조유리)

상반기 22명 새가족 양육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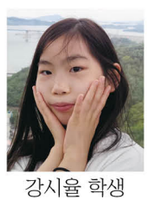
상반기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지난 6월 19일 오후 예배시간에 진행 되었다.

6주간의 새가족 양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수료증을 받은 성도는 모두 22명이다.

이날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곽형주 김수영 나용관 박덕주 박두래 박미영D 박수희 박순리 박희경 백은정 아이자 양정화 염지영 유미순 이 훈 장황현 정석호 정윤례 최자인 최치원 한동순 황의구 등이다.

양육자는 강상춘 김기영 김미리 김영숙 김혜림 류명희 박종욱 백경필 우주연 위경애 윤정희 이경수 이종남 정기문 정윤옥 최만임 최선금 등이며 이들을 전도한 전도자는 김일섭(5) 김형선 나옥희 박명심 백경필(2) 오순열 우주연 유종천 윤정희(2) 정기문(3) 최현 한진희(2) 등이다. 괄호 안은 전도자 수.

제34회 전남노회 어린이 대회 입상



강시율 학생



박여민 학생

지난 5월14일 광주무등교회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주최 제34회 어린이 대회에서 우리교회 2명의 어린이가 입상했다. 입상자는 강시율(4학년) 초등부 글짓기 은상(강성백-나기윤 집사) 박여민(2학년) 유년부 성경암송 동상(박창민-박소희 집사) 등이다.

SUMMER CAMP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 확정

우리 교회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과 주제가 확정되었다.

영유아 유치부는 '찾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7월 16일(토) 교회 지하 1층 유치부실에서, 유년부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을 주제로 같은 날 유년부실에서 개최된다.

초등부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을 주제로 23일(토)~24일(주일)까지 초등부실에서 진행되며 중고등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는 8월 4일~6일까지 곡성군 죽곡면 '소망의 언덕'에서 개최된다. 또한 청년부 주제는 '방주 공동체 신앙'이며 7월 14일부터 16일(목)까지 남해읍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부서별 일정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부 서	주 제	일 시	장 소
영.유아.유치부	찾았다 하나님 나라	7월 16일(토)	무등교회 유치부실
유 년 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7월 16일(토)	무등교회 유년부실
초 등 부	여호와만 참 하나님	7월 23일(토) - 24일(주일)	무등교회 초등부실
중·고등부	예수님의 사람	8월 4일(목) - 6일(토)	곡성 "소망의 언덕" 수도원
청 년 부	방주 공동체의 신앙	7월 14일(목) - 16일(토)	경남 남해읍교회

은퇴장로가 쓰는 릴레이 신앙에세이 ②

내가 만난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김순영 은퇴장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같은 반 친구에게 붕어빵 2개를 얻어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그 친구는 바로 집 앞에 교회를 다닌다고 했다. 나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교회에서는 우유도 주고, 옥수수 빵도 주고, 노래도 부르고, 엄청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다.

그 다음 일요일이 되어 약 2키로 쯤 떨어진 교회를 찾아갔다. 그 친구는 몹시 반가워하며 친구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선생님에게 인사를 시켜 주었다.

한 달, 두 달 다니는 동안 새로운 친구들과도 친해지며 공과 공부도 하며 다음 주일을 기다려지는 기쁨도 있었다. 어느 날은 샛길을 걸어 교회를 가는데 눈이 엄청 많이 내려 몇 번을 넘어지고 신발에 눈이 녹아 발이 시려서 가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왔다가 엄마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그날 이후 눈이 많이 와서 몇 주 동안을 가지 못하고 봄볕이 따뜻한 어느 날 일찍 교회를 갔더니 교회 입구에서 배가 만삭이 된 사모님을 보고 큰 실망을 하고 나를 인도한 친구에게 "교회 사모님도 애를 낳느냐"고 푸념을 하였다. 그 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가 중학교에 입학 후 다시금 교회를 찾았다.

성경을 읽고 쓰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가기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럴 때 마다 교회를 찾게 되고 기도 하였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다니던 교회에 가서 기도 하던 중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께 묻는 버릇이 몸에 베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학교를 졸업 한 후 대한석탄공사에 입사하여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읍 은성광업소에 입사하게 되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힘든 객지 생활이 시작 되었다. 많이 힘든 객지의 직장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퇴근하면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주일 날이면 고등부 교사로 최선을 다하고 저녁이면 철야 예배로, 새벽이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항내 반장 근무 명을 받아 3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다. 20명 정도 반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생산 책임량 때문에 양 어깨는 휘어져 내리는 절박함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 몰리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곳에 보낸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갱내 온도는 30도, 암벽 틈에선 줄줄 흐르는 지하수, 앞뒤를 가릴 수 없는 어두움, 그래도 시간은 멈추지 않아 퇴항 시간이 되어 밖에 나오니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눈을 떴다.

반원 점검과 생산량은 62톤, 오늘 하루 일과는 대성공이다. 생산량을 달성치 못한 몇몇 반장은 장화짝을 들고 갱장 앞으로 갔다. 모두가 모인 줄 알고 나도 줄 맨 뒤로 따라 갔다. 앞에 선 반장들은 갱장이 장화에 부어 주는 무엇인가를 거꾸로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힌 체 마셔댔다. 내 차례가 되어 장화를 들고서니 "야 너는 해당이 아닌데 왜 왔어? 너 막걸리 좋아하니 이건 목표량을 달성치 못한 반장에게 주는 소장님의 특별 하사품인거야. 넌 목표량 달성을 다 했으니 해당이 안되지만 첫날 수고 많았으니 특별 서비스로 한짝 줄까? 아니요. 전 술 못 마셔요. 그래 정말 잘 되었구나 언제나 목표량 달성을 하겠구나." 오금이 저려 왔다.

그 날 이후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원들을 모아 놓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이후 목표량 달성을 하지 못한 날은 한 번도 없었고 재해 발생도 한 건도 없었다. 1년이 지난 날 "무재해, 생산량 달성 100% 달성 반장"이 되었다.

입사한 지 3년이 되어 기획과로 자리를 옮겨 예산 담당을 하게 되어 교회 출석은 물론 안정된 삶을 되찾게 되었다. 또 사택을 구해 광주에 있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다. 16년의 객지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화순으로 오게 되어 "생동하는 광주무등교회"를 섬기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내가 무등교회로 나오게 된 것은 …"



이 훈 서리집사

먼저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장산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어머니 권사님의 사랑으로 모태부터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정읍의 모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정읍중앙교회로 약 300여명이 출석하는 교회창립 70주년을 앞둔 교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와 청년부, 남선교회에 참여했고 대학시절부터 20여년 오랜시간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로 시골교회 곳곳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직장이 있는 광주로 오게 되었고, 정읍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해온 아내 유미순집사와 결혼하여 두 아들 지우, 지민이까지 선물받아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일 이른 아침이면 갓난아이를 둘러업고 정읍까지 약 한시간을 달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예배와 봉사에 힘썼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오랜 시간 차를 타고 다녀서 그런지 저희 두 아들은 장거리운행에도 불평하거나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광주로 이사와서 매주 정읍에서 예배한지 약1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주일을 빠지지 않고 섬겼습니다. 지금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같이 섬겨준 아내와 두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입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지내며 상처받고 힘들다가도, 주일날 교회에서의 예배와 섬김이 정말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마냥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기쁨으로 열심을 다했기에 항상 칭찬받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저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잘 치뤄야 할텐데~ 예민해지기 일수였고... 이번에는 더 멋있어야 할 텐데~ 주위를 신경쓰게 되고...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덜되는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있지 않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커지면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점점 염려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즈음 이었던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부담과 함께 또 하나의 문제는 아이들이 점점 더 성장해가면서 교회가 멀다는 이유로 가고 싶을 때 쉽게 가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교제도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던 광주로의 교회 옮김을 더욱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핑계는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여러 사역들은 어떻하지? 라는 걱정 끝에 부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님께서는 "10여년의 오랜 시간동안 먼 거리를 아이들과 함께 매주 왕복하며 열심으로 여러 사역을 감당한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광주로 교회를 옮기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교회 현재 사정상 집사님 부부가 조금만 더 섬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희 모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병환으로 몇해 째 교회에 안계셨고, 그로 인해 교회에서는 고민 끝에 담임목사님 청빙을 계획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교회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희 부부였기에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읍에서 필요로 하신다는 생각에 또 다시 매주일 아침이면 정읍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담임목사님이 청빙되셨고 교육부서 교역자들도 새로 오셔서 저희도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가정이 광주에서 다닐 교회를 정하는 큰 숙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이들이 예배할 교육부서가 잘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예배를 드려보며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다섯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한 주일씩 예배드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예배 허용 인원이 30%로 제한되어서 미등록교인은 예배참석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코로나19가 신천지로 인해 확산되어서 인지 대부분의 교회에서 새로 오는 사람을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 포기할 저희가 아니기에 일단 다섯 교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예배시간과 현재 참석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방역지침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이 어려우니 영상예배를 안내받았고, 두 번째 교회는 예배당을 신축중이어서 1년 후에 완공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본 예배당은 구경도 못해보고 삼엄한 입국절차를 걸쳐 식당 같은 곳에서 TV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네번째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 조용하신 목사님이 계셔 편안했지만 교육부서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여 저희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무등교회입니다. 전화를 했을 때 부드럽고 멋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를 처음 가보려는데 코로나라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환영합니다. 저희교회는 좌석이 넉넉하게 있어서 부담없이 와서 예배드리시고 혹시나 마음의 감동이 오시거든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내받고는 정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2022년 1월 첫째주일 무등교회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둘째아들과 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첫째와 저는 중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려 들어갔는데 새해 첫째주 예배라서 그런지 다들 분주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눈에만 보였던 건지 몰라도 등 뒤에서 담임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선생님들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해 첫주일 격려차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주러 오셨던 모양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으시고 활기찬 예배분위기에 많이 놀랐습니다. 함께 중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벅찬 감동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둘째와 함께 초등부 예배를 드렸던 제 아내도 똑같이 생각하고 느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가족회의를 하는데 다음 주에는 어느 교회를 가볼까? 했더니 숨도 쉬지 않고 무등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두 아들들이 정말 좋은걸까? 이놈들 그저 맛있고 풍성한 간식에 현혹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몇 주 지나 보니 그것만은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히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 마음과 무엇보다도 신령한 예배가 아이들의 마음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섬겨야 할 교회를 정함에 있어서 너무나 신중하여 바로 등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는지 매주 무등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일단 미등록상태로 예배드리기는 했지만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본당 로비로 들어 올 때는 QR체크 대신 일일이 명단에 가족모두의 이름을 적어야만 했지요.

처음 예배실에 들어왔는데 웅장함에 엄청 큰 콘서트홀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따뜻하고 정말 다정한 목소리의 담임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하였습니다.

미등록교인으로 4개월을 예배하는 동안 저희 가족이 무등교회 공동체의 새식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정기문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교회와서 낯설어하는 저희에게 먼저 인사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안부를 물어봐 주시며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 애쓰시는 모습에 저희 가족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궁금한 점도 정기문집사님을 통해 알게 되고 한분 한분 성도에게 저희를 소개해주시면서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는 집사님 부부를 많이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경험했던 신앙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다시한번 예배에 대한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2022년 1월 첫 주부터 4개월을 미등록교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마음의 감동이 있어 부활 주일날 무등교회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안에서 섬김이나 봉사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으며, 분주한 마음을 갖지 않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발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가족 간증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염지영 성도

먼저 이렇게 부족한데도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에 우주연 권사님 전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전혀 안다닌 건 아니었고 중학교 때는 성가대도 하면서 열심히 교회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면서부터 방황을 좀 하다가 그 뒤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쭉 살아왔습니다.

우주연 권사님은 아들이 다니는 같은 학교 어머님으로 처음 뵙게 되었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가 야구를 늦게 시작하면서 하루도 맘 편할 날 없던 상황에서 '아 내가 이러다 제 명에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권사님을 만나서 차 마시고 얘기하는 시간이 유일하게 저에게는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권사님과의 만남이 단순히 위로받는 차원을 넘어서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경험들을 몇 번 하게 되면서 "언니만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다"고 했더니 권사님께서 "자기야 하나님 믿자. 하나님이 다 해 주세요" 하시길래 제가 바로 그 주 예배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가장 변화되고 좋아진 거라면 생활 속에서 감사와 감동의 순간이 아주 많아진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던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황홀한 감정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고 몇 주 안돼서 현재 충장중학교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아들을 전도했었는데요 아들과 경험했던 성령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아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서 교회에 처음 예배를 보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갑자기 호기롭게 아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범교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랑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범교가 교회오게 된 걸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싶어할 것 같은데 범교가 정말 원하는 걸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들어주실거야" 라고 하니까 바로 아들이 "컴퓨터 바꾸게 해주세요" 말해서 "그 정도는 엄마가 해주는 거고, 엄마가 할 수 없는 걸로 기도해야지" 하면서 아들과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아들의 현재 관심사가 형들 정식 경기에서 뛰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5월 경기에 범교도 뛸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볼까" 했더니 아들이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생각해보니 이제 막 입학한 1학년이 그것도 학년 초에 정식경기에 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일인 데다 못 나가게 될 경우 아들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아들에게 말을 바꿨습니다. "경기에 한 번 뛰고 안 뛰고가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니고 첫 기도인데 우리 아주 통 큰 걸로 기도하는게 낫겠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하기를 "아들 키를 190센치까지 키워달라 기도하자. 그리고 믿고 노력해보자"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평일에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집에 오는데 범교는 날를 거실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 세우고 자기랑 키재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엄마 나 키 컸어" 하면서 재보는데 매번 제 키를 넘지 못해서 실망하고 오히려 저한테 "엄마는 지금도 키가 커?" 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간 첫 주 금요일 저녁에 역시나 둘이 거울 앞에 섰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제 아이 키가 저보다 훌쩍 올라가 있는 거였습니다. 저도 놀라고 범교도 놀라고 우리 둘은 한동안 서로를 쳐다만 보고 있을 정도로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은 5월 초 중학교 경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중등부 정식경기 중 한 경기에서 범교가 다니는 학교가 상대팀에게 콜드승 이상의 점수를 얻어서 승리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감독님이 갑자기 1학년 중에서 4명을 타자로 투입했습니다. 거기 마지막 선수로 아들이 출전해서 2루타를 쳤는데 볼이 빠지면서 3루타를 기록하고 홈까지 한 번에 뛰는 멋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범교 경기실적은 1타수 1안타 3루타 10할로 기록되어있습니다. 범교는 그 기록을 거의 매일 들여다 보는데 아마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작은 소망까지도 멋지게 들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지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제가 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매일 하나님께 제 기도만 들어달라 징징대고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신앙이 너무 어리지 않나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처음보다는 한층 더 성숙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부터는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기와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부에서는 / **시설관리부**

교회 첨탑에서부터 지하실까지 우리가 책임진다"



좌로부터 김병완 유종천 최대삼 김춘호 김의수 최광수 서기종 강종윤 황동열 집사

시설관리부는 한마디로 교회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다. 교회 첨탑 십자가부터 지하 2층 기계실까지 손이 안가는데가 없다. 특히 교회가 이전해 온지 15년이 넘다보니 여기 저기 손봐야 하는 곳이 많아져서 갈수록 바빠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마무리 된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와 주차선 긋기 등도 시설관리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일이다. 물론 아스콘 포장비 일부를 서구청에서 지원받게 된데는 이상명 은퇴장로님과 최광수 관리집사님 등이 수차례 서구청을 방문하여 얻어낸 것이지만 장비를 들고 일하는 사람은 시설관리부원들이다.

광주무등교회의 시설관리부의 터줏대감은 노희상집사이다. 교회가 이전해 온 이후 지금까지 노희상집사가 자기집처럼 관리해주었다. 교회 안내책자에는 시설관리부원 명단이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교통관리부원들이 겸치기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는 오랫동안 교통정리부로 활동해 온 제가(황동열집사) 회장을 맡다보니 내일네일 할 것이 없이 손을 보태는 바람에 활동이 가장 활발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항상 안타까웠던 것은 주차선이 넓지 않아 차에서 타고 내릴 때 옆 차의 문이 닿아 성도 간에 눈살 찌푸리는 일도 종종 있었던 터라 이번에 주차선이 넓어지면 그런 일이 없어져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 같다.

이번에 주차장 아스콘 공사가 끝나고 나면 후반기에는 교통정리부 초소와 교회 쓰레기장을 새롭게 건립하여 더 깨끗하고 쾌적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설관리부의 오래된 숙원이다.

시설관리부는 '성도님들을 편하고 기쁘게'하는 것이 제일의 모토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항상 깨끗하고 아름답게 괸리 되어서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한다.

사실 눈이 많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면 우리 집 보다 성전이 먼저 걱정된다. 교회가 저지대에 있는데다 공간이 넓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하 2층의 습기를 줄이기 위한 공사, 성도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닥을 처리하는 일까지 세심하게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 시설관리부 스스로를 칭찬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의 "수고하십니다"라는 격려 한마디에 새로운 힘을 얻는 '착한 남자'들이다.

조경미화부인 최부식집사 또한 교회에 매일 같이 나와 교회 시설 관리에 힘을 보탰다.

올해 시설관리부로 봉사하는 사람은 김병완 유종천 최대삼 김춘호 김의수 최광수 서기종 강종윤 황동열 집사 등이다.

〈황동열 집사〉

무등칼럼

환경문제와 엘니뇨 및 라니냐 이야기



황필순 목사

우리는 근래에 와서 지구의 기상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엘니뇨라 하고 지구 저온화 현상을 라니냐라고 부른다. 엘니뇨는 원래 남미 페루 연안에서 해류의 변동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매년 크리스마스 경이 되면 올라가는 계절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페루 연안에 서식하는 플랑크톤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것을 먹고 사는 물고기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런 현상이 크리스마스 경에 발생한다고 해서 "아기예수"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라는 엘니뇨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평년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 현상을 '엘니뇨'라고 부른다. 특히 기상학자들은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의 온도가 5~6개월 이상 평년보다 0.5℃ 이상 낮은 경우를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고 하는 '라니냐'라고 정의한다.

최근 관측에 의하면 엘니뇨 현상은 페루 연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적도 북쪽까지 동태평양 수온이 대규모로 높아지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엘니뇨 현상은 해마다 최대현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각처에서 가뭄과 산불, 홍수와 태풍, 한파와 동사 등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엘니뇨의 피해가 일고 있는 지구의 다른 쪽에서는 다시 라니냐가 발전하여 지구촌 각 곳에는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대로 근래에 오면서 강원도 산불 같은 대형화재, 최고 더위, 최대 홍수, 최대 태풍, 또는 최고 추위라고 하는 늘 최신 기록이 세워지고 있다. 피해 사례로는 중국의 양쯔강 범람을 비롯해서 일본, 호주, 중남미, 유럽의 폴란드, 체코 등지에서의 대홍수나 인도, 터키, 그리스, 모스크바 등지에서의 폭염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바 있다.

한편 최근 사용된 용어로 "블럭킹 현상"이라 하여 해수의 온도 상승으로 발생하는 강한 고기압의 흐름으로 남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세계의 지붕 같은 북극 산악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므로 세계 각 곳의 저지대 도시들이 침수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바닷물의 순환 변화, 해수면의 상승, 산호초류 및 생태계의 파괴, 가뭄과 농수 부족으로 수확량의 감소, 신종 전염병 등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가 실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자연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 총회환경보전위원장)

택시 이용주일에 있었던 일

우린 팁을 드리고 기사님은 헌금하시고 …



김현숙 권사

2년 전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일상이 지속되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더 힘들어졌다. 2022년 거리두기 완화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자 저는 기쁜 마음과 함께 복음을 전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기도하던 중 코로나 시국에 이용승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택시전도를 계획하게 되었다. 택시를 이용하는 주일을 정하여 그날만큼은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교회까지 택시를 이용해 줄 것을 홍보했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의 뜻을 밝혔다.

택시전도에 참여한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과 함께 생수와 전도지를 택시 기사님께 전달하고 10,000원에 대한 거스름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도착지로 자연스럽게 광주무등교회의 위치를 기사님들께 알릴 수 있었고, 작은 정성에 기사님들도 기분 좋은 운행을 할 수 있었다.

5월 15일 주일 1,2,3부 예배시 성도님들은 약 131대의 택시를 이용했으며, 기사님 한 분은 주일 오전에 광주무등교회를 두 차례나 방문하신 분도 있었다.

또 하나 은혜로운 일은 먼저 택시를 이용하신 장로님께서 선물도 주시고 거스름돈도 받지 않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다 하시며 두 번째 요금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 교회에 헌금으로 내겠다고 기사님도 계셨다. 간절하고 강력한 요청에 조O숙 기사님의 성함으로 감사헌금을 내드렸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이 분명한 것 같다.



최현식 은퇴집사

추억소환

인생 칠십이면 가히 무심이로다.
흐르는 물은 내 세월 같고
저무는 해는 내 모습 같으니
어찌 늙어보지 않고 늙음을 말하는가.

육신이 칠십이면 무엇인들 성하리요
둥근 돌이 우연일 리 없고
오랜 나무가 공연할 리 없고
지는 낙엽이 온전 할 리 없으니

어찌 늙어보지 않고 삶을 논하는가
인생 칠십이면 가히 천심이로다.
세상사 모질고 인생사 거칠어 도
내 품 안에 떠가는 구름들아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탐하리오.

3040 가족캠핑 참가기

'바베큐'와 '불멍' 보다 더 뜨거웠던 것들…



김보훈 집사

캠핑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베큐, 불멍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교회 3040 캠핑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바로 사랑, 헌신, 섬김, 감사였다. 사실 많은 장비와 먹거리를 세팅하고 준비하느라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남'과 '믿음 안에서 하나됨' 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행복했던 캠핑이었던 같다.

누군가의 자녀로, 사랑하는 아이들의 부모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모든 게 처음이고 서툰 우리 3040 세대, 각자의 삶에 지워진 무게가 힘겹지만 그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하고 마음 한 켠에 묻어둔 것들을 털어내는 시간이었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고민들을 하나하나 쌓아올리다 보니 갈수록 위축되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결혼과 집 장만, 출산 등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고민거리들을 잠시라도 내려놓기 위해 기획된 것이 캠핑이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큰 결실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캠핑을 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눔으로 하나하나 깨트리고, 갈등하고 분열되는 것들이 신앙 안에서 치유되는 경험하는 것은 큰 결실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자유로움'을, 부모에게는 '휴식과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한 3040 캠핑. 비록 좋은 자연 환경속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교회 주차장이라서 외갓집처럼 마음이 편했고, 많은 분들이 도움과 후원을 주셔서 풍족하고 행복한 행사가 되었다. 아이들은 수영장과 주차장 뜰을 뛰어다니며 언제든 꺼내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마냥 즐거웠고 부모들은 즐거워 하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한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되었다.

비가 쏟아지는 주일 저녁 시간, 맛있는 바베큐를 굽고 나누며 배불렀고 30405060 팀의 깜짝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무엇보다 청년 시절 열심히 믿음 생활 하였지만 먹고 사는 것에 바빠 한동안 교회를 떠나있던 형제가 어느덧 부모가 되고 가장이 되어 아이와 함께 캠핑에 참여하고 주일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과 감사의 잔치였다고 말하고 싶다.

낭비가 사랑을 만나면 헌신이 되고, 헌신에 희생을 더하면 투자가 된다는 나눔의 말씀처럼 우리의 캠핑에는 사랑이 있고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문지방에 바른 유월절 양의 피처럼 환난 중에도 우리 가정이 무사하길 기도하며 욕심 많은 나 같은 죄인도 여전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다.

캠핑을 마치고 같이 준비했던 모든 지체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보훈아…ㅇㅇ야… ㅇㅇ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캠핑을 계기로 이 말씀 붙잡고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며, 어려울 때 서로 도와가는 믿음의 3040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





2022년 전도축제 내가품은 전도대상자 명단

강대의 강대필 강미선 강병욱 강성원 강옥현 강우성 강은희 강재춘 강정자 강정희 강혜영 고석만 고연오 고영애 고혜정 공석요 공석표 공윤환 공은아 구자열 권정아 기은주 김 융 김건식 김경량 김경채 김광수 김규남 김기만 김기철 김길원 김남수 김대진 김동식 김동주 김맹모 김명종 김문옥 김미경 김미량 김미숙 김미연 김미영 김미정 김미화 김범중 김보건 김복님 김상우 김선임 김선임 김성근 김성현 김소연 김소형 김수남 김수희B 김순복 김신의 김신호 김연숙 김연희 김영란 김영성 김영일 김영임 김예숙 김오목 김용석 김용진 김용희 김육례 김은경 김은실 김은지 김정애 김종민 김종택 김준순 김지영 김진우 김진혁 김진환 김찬옥 김철중 김필봉 김필제 김하진 김현미 김현진 김현태 김현희 김형태 김혜란 김혜미 김혜숙 김회철 김희관 김희순 김희철 나강엽 나성희 나윤성 나윤하 나종근 나지순 나희숙 노영숙 노행주 류민수 류승훈 류은주 류현미 마금자 모성은 문 영 문길만 문유복 문장곤 박귀남 박기순 박기영 박남순 박미정 박병조 박석원 박성문 박성자 박성자 박성호 박세진 박송숙 박순희 박애영 박양순 박영숙 박영옥 박예은 박옥진 박재영 박정은 박종호 박주성 박준택 박준희 박창식 박향미 박형남 배석범 배창숙 배형수 서대운 서민환 서삼두 서삼숙 서성재 서유리 서지수 서한중 선기도 손옥선 송경숙 송경애 송금자 송기정 송맹근 송미숙 송미자 송선영 신동아A이웃 신인정 신철호 안병길 안순섭 양금자 양순님 양현준 오덕용 오동현 오영미 오정진 오중임 오현숙 우 순 우정아 유성영 유성영 유영순 유영준 유주하 유현서 유혜숙 윤 일 윤나경 윤남용 윤대진 윤순영 윤영희 윤진영 윤철민 윤철환 윤현상 은희준 이 건 이규연 이규진 이금숙 이다연 이덕선 이동은 이만수 이명숙 이민서 이범재 이봉례 이서영 이서정 이선미 이선영 이선혜 이성근 이승금 이애순 이엘리사 이여성 이영미 이영숙 이영준 이용우 이유림 이윤정 이윤진 이재은 이정례 이정숙 이정자 이정훈 이준혁 이지선 이지연 이지윤 이지훈 이태성 이현숙 이홍은 임가영 임미경 임서영 임옥란 임옥순 임옥자 임종구 임진형 장덕희 장문용 장수빈 전 건 전 율 전미진 전연호 전연호 전준석 정경태 정대웅 정명기 정명주 정무성 정미영 정병환 정선영 정선정 정성아 정승기 정원주 정찬이 정철수 정현일 정현진 조금자 조미경 조미진 조민수 조선희 조세영 조영기 조영현 조용범 조용욱 조윤호 조정숙 조판형 조하정 조호선 주귀애 주대영 주순희 지승용 진혜란 최미숙 최병채 최복선 최봉주 최봉훈 최선란 최수아 최안희 최연수 최영성 최영철 최원정 최은수 최인영 최장원 최종숙 최준동 (父母) 최진웅 최창환 최현숙 최현화 한경한 한정필 한진희 한혜숙 형진우 홍상석 홍영배 황성철 황인옥 (329명)

무등plus 편집위원

지 도 목 사 : 최충희
편집위원장 : 지형원
편 집 위 원 : 이종남 이경수 김명순 서세희 김정아 최 현 양보라 지연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Christian Ethics Movement
좋은교회 - 2014 땅 끝까지 전도하는 교회 -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무등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와이신협



이사장 김 일 섭
H.P 010-5533-2848

신협에서 간편하게
자동이체 변경하고 선물받읍시다
- 공과금 자동이체 3건이상 변경시 잡곡세트
- 공과금 자동이체 5건이상 변경시 후라이팬

정기예탁금 (창구전용/세전/만기지급식)
1년 2.90%

유니온 정기예탁금 (모바일전용상품/세전/만기지급식)
1년 3.01%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대이율은 우대조건 항목 충족 시 우대구분에 따른 우대이율을 각각 적용하며, 우대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이 예금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계약시 약정한 이율보다 낮게 적용합니다. * 이 예금상품의 만기 후 해지 이율을 만기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원금 및 이자가 지급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보호됩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시행일자: 2022.06.29

상무역점 Tel.062)232-6137 금호점 Tel.062)368-2101